

금요 양성 2026년 5월 8일

Yes - 우리의 모범이신 마리아

재속프란치스칸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회칙 9조) 성모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이시다. 회원과 형제회는 동정
성모를 당신 활동의 안내자로 삼으신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본받아 살며,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다. (회헌 16조
2항)*

예스

겸손한 종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부르심에 열려 있음

완전한 헌신

간절하고 확신에 차 기도하는 사람

예스

성모님은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의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녀는 겸손한 봉사의 모범이셨다.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수용하셨다.

예스

프란치스칸들은 섬김의 부르심을 받았다.

친구나 형제회안에서 다음을 토의하십시오.

+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합니까?

+ “부르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예라고 기꺼이 대답합니까?”

- +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 인정이나 감사를 받지 못할 때라도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